

УДК 811.161.1:81'367+811.531:81'367  
DOI 10.25205/1818-7919-2018-17-10-129-152

## Сопоставительн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систем членов предложения в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А. С. Шмакова, Ли Джонсик

*Новосибир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Korea Foundation  
Новосибирск, Россия; Чеджуд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Аннотация

В статье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ны существующие классификации членов предложения в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Необходимость такого сопоставления обусловлена значительными различиями в составах предложений двух языков, исследование которых необходимо для выполнения адекватного перевода. В ходе анализа выявлено, что при выделении членов предложени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наиболее важным оказывается «принцип интуитивности», проявляющийся на уровне подчинительных связей в словосочетаниях. В агглютинатив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иболее важными при выделении частей речи являются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принципы.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ыделяют шесть членов предложения – четыре главных и два второстепенных (без учета служебных слов), в русском – пять (два главных и три второстепенных).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 главным членам предложения относятся подлежащее, сказуемое, дополнение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член, к второстепенным – определение 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главными членами предложения являются подлежащее и сказуемое, а все остальные – второстепенным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ереходные глаголы обязательно требуют после себя дополнение,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предложение считается незаконченным. В русском же языке, напротив, ввиду наличия лабильных глаголов необязательн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дополнения. Более всего сходств выявлено в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у подлежащего и сказуемого, более всего различий – у определения.

###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русский язык, система членов предложения, главные члены предложения, второстепенные члены предложения, сравнение, синтаксис

### Для цитирования

Шмакова А. С., Ли Джонсик. Сопоставительн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систем членов предложения в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 Вестн. НГУ. Серия: История, филология. 2018. Т. 17, № 10: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С. 129–152. DOI 10.25205/1818-7919-2018-17-10-129-152

## A Contrastive Study of Sentence Elements in Russian and Korean Languages

Anna S. Shmakova, Lee Jung-Sig

*Novosibirsk State University, The Korea Foundation  
Novosibirsk, Russian Federation; Republic of Korea*

### Abstract

Despite the many active ex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various fields between Korea and Russia over the last 20 years, there is an obvious lack of analysis of data in the field of linguistics. In addition to the differences in

© А. С. Шмакова, Ли Джонсик, 2018

ISSN 1818-7919

Вестник НГУ. Серия: История, филология. 2018. Т. 17, № 10: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Vestnik NSU. Series: History and Philology, 2018, vol. 17, no. 10: Oriental Studies

the perspective of language in Russian linguistics of Russia and Russian linguistics of Korea, the opinions of scholars of the two countries differ as well.

Firstly, research about the Korean language in Russia has been mainly conducted based on classical history and classical literature of the country while Korean grammar was studied based on “native language”. This caused a large amount of inconsistencies and mistakes to arise in turn as the system of sentence elements greatly differs between Korean and Russian.

Korean has long been regarded as belonging to the Altaic family of languages, the syntax of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absence of a mandatory grammar category, the absence of a subordinate-equalitarian mechanism of sentence complexity, and a lack of analytical syntax [Brechalova, 2009. p. 197]. In addition, there are numerous other complicated syntactic structures, the not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noun phrases and verb phrases, the possibility of single and auxiliary use of verbs, and nested structures [Brechalova, 2008. p. 28].

In addition, Korean sentences most commonly consist of a combination of “main ideas” and “inner ideas”, which causes a lot of syntactic ambiguities in the parsing process due to one or more expressions appearing in any given sentence. Most of these are due to the problem of sphere attachment that arises from the range of nested structure formulas [Lee, Yong-suk, 2008. p. 50]. Moreover, Korean is an unstructured language with frequent omissions and free words [Lee, Yong-Yong, 2008. p. 52].

In order to analyze Korean texts, the application of terms and analytical methods developed in Korean linguistics by famous Korean scholars Nam Gisim and Go Yeonggun is being proposed. This article serves as the first step in this process by comparing systems of Russian and Korean sentence elements in order to present the ke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 Keywords

Korean, Russian, sentence system, main sentence members, secondary members of the sentence, comparison, syntax

#### For citation

Shmakova A. S., Lee Jung-Sig. A contrastive study of sentence elements in Russian and Korean languages. *Vestnik NSU. Series: History and Philology*, 2018, vol. 17, no. 10: Oriental Studies, p. 129–152. (in Russ.) DOI 10.25205/1818-7919-2018-17-10-129-152

#### 사사

본 논문을 위하여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날카로운 지적과 따뜻한 조언으로 논문의 방향을 잡아주신 최형용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도움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문장 성분 대조 연구

최근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류가 많이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어학 분야에서의 자료에 대한 대조 분석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한국 언어학과 한국의 러시아 언어학 속에서 언어에 대한 시각이 다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학자 간의 견해 또한 다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에서 한국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전역사나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한국어 문법은 ‘모국어’를 기반으로 연구되었다.

둘째, 현대 러시아 내의 한국학과 언어학에서는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러시아어로 번역할 때 꼭 필요한 ‘구문 분석’ 방법으로 언어학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A. A. Kholodovich (А. А. Холодович) 개발한 한국어 문법 패러다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과학적 패러다임처럼 이 패러다임도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다. 홀로도비치는 한국어 텍스트 구문 분석을 위해서 러시아 언어학에서 논의된 용어와 분석 방법들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가 러시아어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처럼 도출되게 할 수 있다는 오류가 있다. 즉, 한국어로 된 문장에 러시아 언어학에서 논의된 분석 도구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어는 이전부터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고 보고 있는데 알타이언어계의 통사론은 의무적 문법 범주가 없고, 복문의 부분사이에 복문의 종속-대등적 메커니즘이 없으며, 분석적인 구문이 많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Бречалова, 2009: 197]. 그 외에도 다소 복잡한 문법 구조 (syntactic structure) 가 많다는 것, 명사구와 용언 간의 관계 표시법, 일부 용언의 단독적 및 보조적 사용 가능성, 내포문의구조 등 [Бречалова, 2008: 28]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문장은 대부분 주절과 내포문을 가지는 복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복문에 나타나는 하나 이상의 용언으로 인해 구문 분석 과정에서 수많은 구문 애매성이 발생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내포문의 수식 범위로부터 발생하는 구 부착의 문제 때문이다[이현영, 이용석, 2008: 50].

더욱이 한국어는 생략이 자주 발생하고 자유 어순을 갖는 비구조적 언어이다[이현영, 이용석, 2008: 52].

위에 언급된 이유만으로도 한국어 구문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은 여러 가지 문법 구조를 충분히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는 언어의 문법 체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에는 3학년부턴 ‘문학 및 비문학 번역’이라는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목이 포함된 지는 8년이 되었는데 한국어 학습자들은 통사론을 제일 어려워하고 있다.

물론, 초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통사론에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3,4학년 학생들에게 통사론은 필수적이고 한국어 구문을 비교적 정확하게 번역하기에 용이한 도구 및 방법이다.

그리고 노보시비르스크 국립 대학교 한국어학과는 매년 졸업시험문제로 한국문학의 일부를 발췌하여 출제하는데, 이것은 통사론의 이해 여부가 졸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번역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반복적인 오류 중 절반 가량은 한-러 번역 시 구문 분석 잘못 하여 발생하는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 대한 구문 분석은 단순히 러시아 언어학의 구문 분석 체계를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문장 성분 대조를 통해 한국어 구문 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1.2. 선행 연구 검토

### 1.2.1. 러시아어의 문장 성분 연구

러시아 언어학에서 통사론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러시아어 문장 성분 체계의 특징 때문이다.

러시아어는 어순이 통사론 법칙성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의사소통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더 적절하다. 화자의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서 어순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어는 어순 순환 (conversion) 과 같은 표현법이 흔히 사용되지 않는다.

러시아 언어학에서는 문장성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통사론에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 있고 문장 성분만 중심으로 된 연구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언어학에서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는 20세기 후반에 전반적으로 형성되었다. 대표적으로 V. V. Vinogradov [В. В. Виноградов, 1975; 2001], V. V. Babaitseva [В. В. Бабайцева, 1988; 1989], G. A. Zolotova [Г. А. Золотова, 1988], N. Yu. Shvedova [Н. Ю. Шведова, 1980] 등의 논문이 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언어학자들은 문장 성분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첫번째 그룹은 주성분이고 두번째는 부속성분이다. 주성분 중에 주어와 서술어가 있고 부속 성분들 중에 목적어, 관형어, 상황어, 부가어 (adjunct) 와 한정사가 있다.

하지만 문장성분에 대한 분류는 아직도 완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Vinogradov (Виноградов) 주어와 서술어는 용언 관계가 있는 주성분으로 보았다. 주어는

주격인 명사와 주격인 대명사가 될 수 있고 서술어는 일인칭동사, 동사, 형용사 등이 될 수 있다. 주성분은 문장의 중심이다.

부속성분은 단어 결합 사이에 있는 관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Vinogradov (Виноградов) 부속성분을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로 구분하였다.

또한 비노그라도프는 나탈리아 슈도바의 영향으로 문장성분 중 전체적 문장에 해당되지만 주어, 서술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정사를 따로 구분하였다.

구성적-의미적 개념 (structural-semantic linguistic) 을 정립한 Babaitseva (Бабайцева) 의 영향을 받은 1970년대에는 언어 형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의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구성적-의미적 특징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장 성분은 일정한 특징을 가지는 문장의 구성적-의미적 요소라고 한 것이다. 문장 성분의 구성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현법, 다른 성분과의 연결법, 그들의 위치. 문장 성분의 의미적인 특징은 논리값 (logical value), categorical value, 전달 목적이다. 하지만 언급된 요소들은 문장 성분을 분류하기 위한 단일 속성이 될 수는 없다<sup>1</sup>.

Babaitseva (Бабайцева) 는 러시아어의 주성분을 주어와 서술어로 정의하였다. 대표적인 주어는 문장의 구성에 들어가 있지만 구조적으로 독립된 서술어 앞에 나오는 성분이다. 주어는 주격인 명사나 대명사로 표현되어 문장의 주제나 대상을 말하거나 행위자, 소유자 등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서술어는 문장의 구성에 들어가 있고 주어 뒤에 나온다. 서술어는 주어와 종속관계 있고 명사나 변경시킨 형태로 된 동사나 용언으로 표시되고 “새로운” 주제와 회화 대상의 양태적-일시적 속성을 의미한다.

부속 성분들중에 배라 바바이체바 연구자는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를 구분한다.

Shvedova (Шведова) 학자는 문장의 구성적인 미니명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Shvedova (Шведова) 는 주성분들중에 주어와 서술어를 구분하고 부속인 성분을 종합적으로 한정사라고 부르며 한정사중에 대상적 한정사, 주체적인 한정사, 상황적인 한정사, 대상적-상황적인 한정사, 주체적-상황적인 한정사를 구분하였다.

Zolotova (Золотова) 학자는 전통적인 러시아어 성분 문장 체계를 부정하고 주성분과 부속 성분을 구분하지 않고 기본적인 통사론적 소부분에 대해서 말했다. 그런 부분을 Zolotova (Золотова) 연구자는 syntaxeme 라고 정의하였다. 모든 syntaxeme 는 일정한 통사론적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Zolotova (Золотова) 는 담론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어체계를 개발했다. 그 체계에는 한정사 (determiner) 와 그의 대한 평가, 대상자와 대상자의 상태, 소유자와 소유 대상이 있다.

### 1.2.2. 한국어의 문장 성분 연구

문장 성분은 국어 문법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연구 주제이다. 하지만 이 주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 언어학에서 국어 문법론이 연구되었던 20세기 초에 쓰였던 용어체계가 서술적 (descriptive) 이어서 20세기 후반에서 나온 용어체계와 다르기 때문이다.

20세기 초에서 1985년까지 한국어 문법 성분 체계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오늘의 형태에 이르게 되었다. 1985년에 나온 남기심과 고영근의 «표준국어 문법론»(제4판) 본 연구를 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위 논문에서 학자들은 한국어의 문장 성분을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및 보어, 부속성분은 관형어와 부사어, 독립성분은 감탄사, 체언에 호격조사가 붙은 것, 그리고 접속부사로 이루어진다.

<sup>1</sup> В. В. Бабайцева Теоретические основы школьного и вузовского синтаксиса // Вера Васильевна Бабайцева. Избранное. 1955–2005. Москва, Ставрополь, 2005. URL: [http://textus-pro.ru/\\_ld/0/68\\_Babay-2005.pdf](http://textus-pro.ru/_ld/0/68_Babay-2005.pdf). С. 220–233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6.07.2018).

고영근, 구본관 [2009] 에서 유사한 성분체계가 나와 있는데 주성분을 필수성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속성분을 수의적 성분이라고도 한다. 서술어를 제외한 필수적 성분은 달리 논한이라고 부르고 수의적 성분을 부가어라고도 한다 [고영근, 구본관, 2009: 273].

이흥식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에서는 한국어 문장 성분 체계에 대한 상세한 서술 및 분석이 나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임흥빈 [1987], 김영희 [1989] 에 따라서 주제어와 제시어를 한국어 문장 성분 체계에 더하고 문장 성분 확인 방법과 기준을 다루면서 선행자와 논의를 한다. 이흥식 학자는 문장 성분의 필수성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이정택 [2002] 논문에서 주성분들이 서술어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부속성분은 주성분에 수의적으로 부속됨으로써 문장의 구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정택은 문장 성분이 구성 전체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삼차 성분”으로 분류한다.

일차성분중에 주어, 목적어, 보어, 및 일차 서술어와 일차적 관계를 갖는 모든 성분과 서술어, 이차성분중에 관형어와 이차 부사어, 삼차성분중에 독립어 (문장 수식 기능을 하는 모든 성분 및 대등 접속절과 접속부사)이다.

현대 한국 언어학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문장 성분에 대한 논문들 중에 주어와 목적어 등 중심으로 된 연구들도 나타난다. 그 연구들 중에 박창영 [2014], 차명희 [2015] 등이 있다.

### 1.2.3.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문장 대조 연구

한국 언어학과 러시아 언어학에서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문장 성분 비교나 대조에 대한 연구들이 다소 부족하였다. 하지만 이 주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 논문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목적어 대조 연구 [강 스베틀라나, 2010],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부사어 대조 연구 (송지연, 2016) 등이 있다.

또한 각 나라에서 그 언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되는 ‘언어분법학개론’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문장 성분 체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된 연구를 살펴보면 이명자 (2007), A. A. Kholodovich [Холодович, 1954] 과 V. A. Beloshapkova [Белошапкина, 1989] 등을 들 수 있는데 언급된 문헌에서는 비교나 대조가 안 나오지만 한국어와 러시아어 문장 성분 체계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명자 [2007]에서는 러시아어 문장 성분들에 대한 매우 간단한 분석이 나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러시아어 문장의 성분을 주성분과 이차적 성분 두 분류로 나눈다. 주성분 중에 주어와 서술어를 다루고 이차적 성분 중에 보어, 정어, 상황어를 구분한다. 다음에는 주성분에 따른 문장 분류를 제시한다.

Kholodovich [Холодович, 1954] 에서는 한국어의 문장 구성을 설명할 때 러시아어 문장 구성을 분석할 때 쓰는 용어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Kholodovich (Холодович) 는 문장 성분을 6개로 구분하였다. 주성분 중에 주어와 서술어, 부속성분 중에 목적어, 정어, 부가이다.

Beloshapkova [Белошапкина, 1989] 에서는 러시아어의 문장 성분에 대해 매우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주성분 중에 주어와 서술어, 부속성분 중에 목적어, 정어, 상황어를 구분한다. 서술어를 합성 서술어 (composed predicate) 와 일반 서술어 (simple predicate) 로 나누며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로 구분할 수 있다.

### 1.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문장 성분을<sup>2</sup> 대상으로 한 대조 언어학의 주요 연구방법으로 서술적 방법에 속하는 범주 분석 (categorical analyses), 대조하는 방법에 속하는 대조 해석 (comparative interpretation), 한국어 문장 성분과 러시아어 문장 성분 대조에 목적이 있다.

본고를 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 논문은 남기심과 고영근이 (2014)과 Beloshapkova [Белошапкина, 1989] 이다. 본고에서 이 논문을 쓴 이유는 모든 러시아어와 한국어에 관한 학교 교재에서 나오는 러시아어나 한국어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이 남기심과 고영근, Beloshapkova (Белошапкина)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문장 구분이 매우 높은 문법적 추상성의 수준에서 실시된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

<sup>2</sup>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문장성분의 분석인데 독립성분이 문장 중에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유로 본고에서는 검토하지 않겠다.

문장성분의 구분이 문장 중심, 부차적 구성성분의 분류에 있어, 특히 전통적인 의미 구성의 관점에서 어떤 부속성분이 주성분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Белошапкина, 1989: 611].

### 1. 한국어와 러시아의 문장성분 체계

#### 2.1. 한국어의 문장 성분 체계

문장 성분은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한국어의 문장 성분은 7개의 요소로 이뤄져 있다. 그 요소들을 크게 주성분, 부속성분과 독립성분으로<sup>3</sup> 나누며 주성분 중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 부속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가 속한다.

한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성분들은 서술어의 종류에 달려 있다. 고영근, 남기심 [2014] 에 따르면 국어의 모든 문장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중에 한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 1) 갈매기가 따라온다.
- 2) 명준은 고개를 젓는다.
- 3) 그 노래가 삶이 된다.
- 4) 바다는 잔잔하다.
- 5) 그것은 멋이 아니다.
- 6) 그 눈매는 버릇이다.

이 문장들은 분석해보면 모든 성분들은 문장을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들이어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주성분으로 볼 수 있다.

1)-6) 에서 있는 문장들은 성분이 하나 빠지면 불완전한 구성이 된다. 그리하여 1)에서 ‘갈매기가’ 주어이고 ‘따라온다’ 서술어이다. 2) 에서 ‘명준은’ 주어이고 서술어는 ‘젓는다’이다. ‘젓는다’는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요구한다. 3), 5) 에서 ‘그 노래가’와 ‘그 것은’ 주어이고 ‘된다’와 ‘아니다’는 서술어이다. 동사 ‘된다’와 형용사 ‘아니다’는 반드시 보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삶이’와 ‘멋이’는 당연히 보어가 된다. 이상은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들을 살펴본 것이었다.

다음 예문을 보면 주성분을 꾸며서 뜻을 더해 주는데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 되는 부속성분이 나타난다.

- 7) 명준은 젊고 가난한 철부지 책벌레다.

이 문장에서 ‘젊고 가난한’이라는 말은 주어 ‘철부지’를 꾸며 뜻을 더해 주는 성분인데 그들이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젊고 가난한’은 관형어이고 부속성분이다.

- 8) 광장은 텅 빕니다.

마찬가지로 8)문장에서 ‘텅’이라는 말은 서술어 ‘빕니다’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어가 된다.

남기심, 고영근 [2014] 에 따라서 문장의 성분이 될 수 있는 말의 단위는 단어, 어절, 구, 절이다. 조사는 단독으로 문장 성분이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체언이나 체언의 구실을 하는 말에 붙어서 쓰인다 [남기심, 고영근, 2014: 239~240].

- 9) 우리 유물을 찾는 게 큰일이야.
- 10)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봤다.
- 11) 자기가 너무 불쌍하다.
- 12) 아주 불임성 없이 구는 건 아니다.
- 13) 아주 야릇할 야자였다.

(9)~(13) 문장에서 몇 개의 단어들이 덩어리처럼 되어 있고 다른 품사와 같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명사구 (9), 동사구 (10), 형용사구 (11), 부사구 (12), 관형사구 (13)라고 한다.

#### 2.1.1. 한국어의 주성분

한국어의 문장 성분을 더 쉽게 분석하고 이후 러시아어 문장 성분과 대조하기 위해서 <표

<sup>3</sup>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문장성분의 분석인데 독립성분이 문장 중에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유로 본고에서는 검토하지 않겠다.

1>을 작성하였다<sup>4</sup>.

이 표에서는 한국어 문장 성분의 제일 대표적인 특징이 나와 있다.

Table 1

한국어의 문장 성분의 특징

문장 성분	설명하는 의미	문장 성분의 성립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통사상의 특징	선택제약	생략
주어	‘무엇’, ‘누가’, ‘누구’	주격조사 ‘이, 가/에서, 보조사 ‘은(는), 도, 만, 부터, 까지’ 붙어서 쓰인다	명사 (명사구, 명사절), 대명사, 수사	주어가 존재해야 할 대상이면은 서술어의 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를 붙여 쓰게 한다.	없음	가능
서술어	‘어떠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어미 ‘았’, ‘았’, ‘였’/어말어미가, ‘-이다’, 어간에 보조용언 ‘버리다’, ‘내다’, ‘놓다’, ‘주다’ 붙어서 쓰인다	동사, 형명사, 체언, 체언의 구실하는 말	보통 문장의 맨 끝에 있다. 강조적 표현이 나오면 위치가 옮겨진다.	있음	가끔 가능: 반복되어 쓰일 때 생략
목적어	‘무엇을’, ‘누구를’	체언 상당 구성과 대격조사 ‘을/를’/‘르’, 비교할 때 ‘은/는’, ‘도’로 이루어진다	명사, 명사구, 명사절	서술어인 타동사 앞에 나온다	없음	불가능
보어	‘무엇이’	체언, 명사구, 명사절을과 같은 체언 구실을 하는 말에 조사 ‘이/가’가 붙어서 이루어진다.	명사, 명사구, 명사절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온다	없음	불가능*
관형어	‘어떤’, ‘무슨’ 어느?’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 체언이나 체언 구실 하는 말에 조사 ‘의’ <sup>1</sup> 가 붙어서 이뤄진다.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 부사격의 체언	항상 꾸미는 체언 앞에서만 나온다	없음	가능
부사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서술어나 서술어인 용언의 붙어서 쓰인다	부사, 부사절, 체언에 여러 가지 부사격조사가 붙은 말	한정하는 말 앞에 오는 것이 정상이다 <sup>2</sup>	있음	가능

4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문장 성분 대조 할 때 위 표에서 나와 있는 기준으로 살펴볼 것이다.

### A. 주어

한국어에서 주어는 ‘무엇이’나 ‘누가’에 해당되고 주격조사 ‘이, 가’/에서, 보조사 ‘은(는), 도, 만, 부터, 까지’ 붙어서 쓰이는 주성분이다. 주어는 주체를 말하는 말이다.

문장에서 쓰일 때 주어가 존대해야 할 대상이면은 서술어의 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를 붙여 쓰게 한다. 주어는 높임을 받을 대상이 될 수 없다 [남기심, 고영근, 2014: 245].

주어가 명시되지 않아도 문맥으로 보면 주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주어의 생략이 가능해진다.

### B. 서술어

한국어에서 서술어는 보통 ‘어떠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를 설명하며 용언 어간에 선어말어미나 어말어미 붙어서 쓰인다. 서술어는 주어의 행위, 상태, 성질 말하는 것이다.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 체언, 체언의 구실하는 말에 ‘-이다’가 붙어서 된 것으로 이루어진다. 서술어는 종결형으로서뿐만 아니라 연결형, 관형사형, 명사형으로도 나타난다 [남기심, 고영근, 2014: 253]<sup>5</sup>.

서술어가 되는 용언은 동사이면 그 동사의 종류의 따라서 다른 성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동사는 서술어가 되면은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고 주어와 용언으로만 완전한 문장이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서술어가 된 동사는 타동사이면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타동사와 자동사로 이뤄진 서술어는 목적어외의 다른 성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서술어는 어떤 말하고만 어울릴 수 있는 선택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제약이 있다 [남기심, 고영근, 2014: 258].

### C. 목적어

한국어에서 목적어는 타동사에 의한 대상을 나타내고 체언 상당 구성과 대격조사 ‘을/를’/ ‘=’, 비교할 때 ‘은/는’, ‘도’로 이루어진다 [발라바네츠, 2008: 15]. 명사, 명사구나 명사절이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목적어는 생략이 될 수 없는 성분이고 결집이 되면 첫번째 서술어가 두번째 서술어의 부분이 된다.

### D. 보어

한국어에서 보어는 체언, 명사구, 명사절과 같은 체언 구실을 하는 말에 조사 ‘이/가’가 붙어서 이루어진다.

한국 언어학에서 ‘되다’, ‘아니다’ 앞에 나타나는 성분이 보어가 되는 해석이 제일 보편적이다. 보어는 특별한 표시가 없다. 가끔 보어가 조사 ‘(으)로, 와/과, 에(게)’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 2.1.2. 한국어의 부속성분

##### A. 관형어

한국어에서 관형어는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 체언이나 체언 구실 하는 말에 조사 ‘의’<sup>6</sup>가 붙어서 이뤄지며 체언인 주어, 목적어 앞에서 그것을 꾸며준다.

관형어는 관형사형 어미 ‘-은, -(으)ㄴ, -(으)ㄹ, -던’중에 하나를 취함으로써 용언의 시간표를 자유롭게 한다.

관형어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항상 꾸미는 체언 앞에서 쓴다. 한 문장에 관형어가 몇 개 있으면 그것들은 겹쳐 쓰일 수 있다 [남기심, 고영근, 2014: 271~274].

##### B. 부사어

한국어에서 부사어는 서술어나 서술어인 용언의 붙어서 그 뜻을 한정하는 수의적 성분이다. 부사어가 부사어로 그대로 이루어지거나 체언의 부사격조사가 붙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부사격조사의 종류에 따라서 원인, 처소, 자격 등 여러가지로 나타낸다<sup>7</sup>.

<sup>5</sup> ‘이다’, ‘하다’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에는 시점이 불분명해진다.

<sup>6</sup> ‘의’가 생략될 수 있다.

<sup>7</sup> 어떤 부사격조사를 써야 되느냐 서술어와 주어 요구하는 수의적 성분의 종류와 문체에 달려 있다.



부사어는 종속적 연결어미 ‘-듯이, -도록, -아서’ 등이 이끌고 있는 경우도 많다. 부사어는 서술어,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만 꾸며줄 수 있거나 문장 전체 다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 [남기심, 고영근, 2014: 279~285].

부사어는 겹쳐서 쓰일 수 있으며 보통 꾸며주는 말 앞에서 나온다<sup>8</sup>.

## 2.2. 러시아어 문장 성분 체계

Beloshapkova [Белошапкина, 1989] 에 따르면 러시아어 문장 성분 구성이 6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는 주어 (podlezhashchee, подлежащее) 와 서술어 (skazuemoe, сказуемое) 주성분이고 목적어 (dopolnenie, дополнение), 정어 (opredelenie, определение), 상황어 (obstoyatelstvo,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있다<sup>9</sup>.

러시아어의 문장 성분들은 특별한 관계를 이룬다.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서 이뤄지는 관계는 서술관계 (predicate relationship) 이다.

주성분과 부속성분, 부속성분과 부속성분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일치, 지배와 부가이다. 같은 문장안에서 술어는 주어에 따라 자기 형태를 바꾸고 부속분들도 서로에 따라 형태를 바꿀 수 있다.

### 1) **Сын пьет молоко.**

아들Ø 마시다-단수, 3인칭 우유-대격

아들은 우유를 마신다. (3 인칭 단수 주어에 3인칭 단수 동사활용).

### 2) **Она умная.**

그녀-주격 똑똑하다-여성, 3인칭, 단수

그녀는 똑똑한다. (형용사 술어, 여성형 일치).

### 3) **Два молодых человека стоят в очереди.**

두-주격 젊은-다수, 생격 남자-생격, 복수 서다-3인칭, 복수 전치사 줄-단수, 전치격

두 젊은 남자가 줄을 선다.

이 문장에서 두 가지의 일치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 먼저 ‘два молодых человека’ 에는 ‘수사+형용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로서 남성형 명사에 따른 수사 два의 남성형과 복수 человека 에 따른 형용사 복수형의 일치가 있고, 또 주어와 술어의 관계에서 복수형의 일치가 지켜지고 있다. 정어인 ‘молодых’ 과 주어인 ‘человека’ 사이에도 일치관계가 엄격하게 지켜진다 [이명자, 2007: 111].

또한, 러시아어에서는 문장이나 어결합에서 종속어는 중심이 되는 단어로 부터 요구를 받아서 일정한 문법적 형태를 갖춘다 [이명자, 2007: 113].

### 1) **Я мою посуду.**

나-Ø 하다-1 인칭, 단수, 현재 설거지-대격

나는 설거지를 한다.

타동사 – 대격 지배

### 2) **Дайте мне, пожалуйста.**

주다-2인칭, 높임법 저-수여격, 줌

저에게 줌 주세요.

동사 – 여격 지배

### 3) **Она хочет работать в библиотеке.**

그녀-주격 하고 싶다-3인칭, 단수, 현재 일하다-미정형 도서관에서 – 여성, 전치격, 단수

<sup>8</sup> 남기심, 고영근 (2014)에 따르면 부사어가 표현 효과를 위해서 자리 바꿀 수 있다 [남기심, 고영근, 2014: 285].

<sup>9</sup> 러시아 언어학에서 문장 성분을 구분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바로 서술성이다 (predicativity). 서술어와 주어는 문장의 골격이라고 그 골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모든 성분들은 부속성분으로 여겨져 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다.

**Работать** – 동사 – 전치격 지배

서로 결합관계 있는 명사, 형용사, 부사, 비동사 수어 등이 일정한 격이나 전치사를 지배한다 [이명자, 2007: 112].

4) **В этой книге много страниц.**  
전치사-에 이-여성, 전치격, 단수 책 – 여성, 전치격 단수 많다 페이지-생격, 복수  
이 책은 페이지가 많다.

**Много** 가 명사 복수 생격 지배

5) **В этом кабинете пять столов.**  
전치사-에 이-남성, 전치격, 단수 교실-남성, 전치격, 단수 다섯 개-주격 책상-남성, 단수, 생격  
이 교실이 5개의 책상이 있다.  
수사인 **пять** 명사 생격 지배  
러시아어 문장에서 일치와 지배 혼합된 경우도 많다.

6) **Я занимаюсь кулачным боем.**

나-Ø 하다-1인칭, 단수, 현재 격투기-남성, 대격, 단수  
나는 격투기를 한다.

동사인 **занимаюсь** 과 명사인 **боем**이라는 단어 사이에서 이루는 관계는 지배관계이고 형용사인 **кулачным** 과 **боем** 이라는 단어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는 일치 관계이다.

러시아어는 엄격한 통사적 어순을 강요하지 않아서 문장 성분도 자기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 문장 성분의 순서가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바뀌어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이명자, 2007: 105].

러시아어 문장 성분의 기본적인 특징은 아래의 <표2>와 같다.

Table 2

러시아어의 문장 성분의 특징

문장 성분	설명하는 의미	문장 성분의 성립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통사상의 특징	선택제약	생략
주어	‘무엇이’, ‘누가’	주격 어미를 취함을 받고 이뤄진다  * 주어는 불정확한 양이나 수를 의미하면 생격조사의 취함을 받고 이루어질 수도 있다	명사, 대명사, 명사로 전화된 형용사, 동사 미정형, 수사	주어가 2인칭, 단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존대해야 할 대상이 되고 2인칭, 복수형태로 된 서술어를 요구한다.	없음	불가능

서술어	‘어떠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	단순 서술어: 단순 서술어는 변화되는 동사 (a), 미정형 동사 (b), 동사에 ‘пусть’, ‘да’, ‘пускай’, ‘как бы’, ‘давайте’, ‘едва ли’, ‘чуть не’ 등 (c) 붙어서 쓰인다, 감탄사의 형태로 된 동사 (d), 관형어인 동사 (e)로 이루어진다.  종합 서술어: 인칭 동사 (기본 용언)+ 미정형 동사 (보조 용언)로 이루어진다.	동사, 형용사, 대명사, 수사, 부사, 형동사, 감탄사	바로 주어 뒤에 온다, two-member 문장에서만 나올 수 있다.	없음	반복될 때 가능
목적어	‘무엇을’, ‘누구를’+ 다른사격(斜格) 물음에 답한다	명사, 대명사, 형용사에 사격조사, 붙어서 쓰인다,	명사, 대명사, 동사원형, 부정법	설명하는 단어 뒤에 나온다.	있음	문맥으로 뜻을 알 수 있으면 가능
정어	‘어떠한’, ‘어떤’, ‘무슨’, ‘누구의’, ‘어느’	구며주는 단어와 같은 형태, 격과 성을 취해서 이루어진다/설명하는 단어와 정어 사이에서 전치사가 나타나서 지배관계로 이루어진다	형용사, 명사, 부사, 동사원형, 대명사, 형동사, 어결합	불일치된 정어는 설명하는 단어 뒤에 나오고 일치된 정어는 설명하는 단어 앞에 나온다	없음	가능
상황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디’, ‘어디에’, ‘언제’, ‘어디에서’, ‘왜’		동작이나 특징의 성질, 정도, 동작의 양태, 방법, 때, 장소, 원인, 목적, 조건 [이명자, 2009: 122]	한정하는 말 앞에, 두이에 나온다	없음	가능

### 2.2.1. 러시아어의 주성분

러시아어에 주성분들은 주어와 서술어이다.

#### A. 주어

러시아어의 주어는 ‘무엇’, ‘누구’라는 물음에 대답하고 주요 주체를 말하는 문장 주성분이다. 러시아어에서 명사, 대명사, 명사로 전화된 형용사, 동사 미정형, 수사가 될 수 있다.

주어는 주격 어미를 취함을 받고 이뤄진다<sup>10</sup>.

러시아어에서 주어는 단순 주어 (한 단어로 이루어진 주어)와 종합 주어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주어)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단순 주어는 명사, 형용사, 수사, 대명사, 형동사, 동사원형이나 변경되지 않는 품사로 표현된다.

- 1) **Женщина** пишет книгу.  
여자-여성, 단수, 주격 쓰다-3인칭, 단수, 현재 책-여성, 대격, 단수  
여자가 책을 쓴다. (명사 주어).
- 2) **Слепой** перешел дорогу.  
눈이 먼 사람-주격, 남성, 단수 건너가다-3인칭, 남성, 단수, 과거 길-여성,  
단수, 대격  
눈이 먼 사람 길을 건넜다 (형용사 주어).
- 3) **Я** пришла домой.  
나-Ø 왔다-3인칭, 여성, 단수, 과거 집-격 미정  
나는 집으로 왔다 (대명사 주어).
- 4) **Увидевший** не рассказал.  
본 사람-주격, 남성, 과거 안 이야기하다 – 3인칭, 남성, 과거  
본 사람이 말 안했다 (형동사 주어).
- 5) **Жить** – значит бороться.  
살기-미정형 의미하다-3인칭, 단수 싸우는 것이다 - 미정형  
살기는 싸우는 것이다 (동사 미정형).

가끔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조사와 같은 변경되지 않는 품사들이 (неизменяемая часть речи) 주어라 될 수 있다.

- 6) **Завтра** – будет завтра.  
내일은 내일이다 (푸사 주어).
- 7) **«А»** - это противительный союз.  
‘아’는 – 대조 의미의 접속사다. (접속사 주어).
- 8) **«В»**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является предлогом.  
‘В’는 러시아어에서 전치사다. (전치사 주어).
- 9) **Со всех сторон** раздалось громкое «эй».  
‘에이’ 여러방향에서 크게 울렸다 (감탄사 주어).

□□ □□□

- 1) 주격 형태로 된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부사+ 생격 형태로 된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Пять стульев** стояло у стены.

<sup>10</sup> 주어는 불정확한 양이나 수를 의미하면 생격조사의 취함을 받고 이루어질 수도 있다. 30척 이상의 배가 출항하였다.

5 개의 의자가 벽 옆에 서 있었다.

- 2) 주격 형태로 된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생격 형태로 된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전치사 ‘из’.

**Двое из нас** поедут в столицу.

우리 둘이 수도로 간다.

- 3) 주격 형태로 된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조격 형태로 된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전치사 ‘с’ (복수형 서술어 앞에 나와 있는 경우에만).

**Мать с сыном** поедут (мн. ч.) отдыхать.

어머니 아들과 함께 여행 간다.

- 4) 명사 ‘начало’, ‘середина’, ‘конец’+생격 형태로 된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Стоял конец декабря.**

12월말이었다.

- 5) 명사+관형어, 비유어, 용어 결합

**Млечный путь** разостлался по небу.

은하수는 하늘에서 펼쳐져 있다.

- 6) 부정 대명사+관형어, 비유어, 용어 결합

**Что-то неприятное** было во всем его облике.

그 모습에 뭔가 불쾌한 것이었다 <sup>11</sup>.

#### **В. 서술어**

서술어는 서술성의 소지자와 표현자, 주어와 호응 관계를 이루는 주성분이다. 서술어는 주어의 행동, 상태, 양태를 말한다.

러시아어에서 서술어는 3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1) 단순 서술어 (simple predicate)
- 2) 종합 서술어 (complex predicate)
  - a) 종합 동사 서술어 (verbal predicate)

<sup>11</sup> Подлежащее. Русский язык. Синтаксис и пунктуация. URL: [https://licey.net/free/sskii\\_yazyk/40-kurs\\_russkogo\\_yazyka\\_sintaksis\\_i\\_punktuaciya/stages/701-12\\_podlezhasschechl](https://licey.net/free/sskii_yazyk/40-kurs_russkogo_yazyka_sintaksis_i_punktuaciya/stages/701-12_podlezhasschechl)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1.07.2018).

## b) 종합 명사 서술어 (the Compound Nominal Predicate)

단순 서술어는 한 요소(단어)로 이뤄진 것이다. 단순 서술어는 변화되는 동사 (a), 미정형 동사 (b), 동사+ ‘пусть’, ‘да’, ‘пускай’, ‘как бы’, ‘давайте’, ‘едва ли’, ‘чуть не’ 등 (c), 감타사의 형태로 된 동사 (d), 관형어인 동사 (e)로 표현될 수 있다.

- 1) **Сестра вошла в комнату.**  
누나가 방으로 들어갔다.
- 2) **Жить – Родине служить.**  
살기는 조국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Пусть убирается прочь.**  
쫓아버리게 해라!
- 4) **И в этот момент кошка хватъ бабочку!**  
이순간 고양이는 나비를 덩석 잡았다.
- 5) **Он снова балду пинает.**  
그는 또 뺨뺨이를 친다.

종합 동사 서술어는 인칭 동사 (기본 용언)와 미정형 동사 (보조 용언)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서술어이다. 기본 용언은 서술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보조 용언은 동사의 인칭과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고 변화되는 동사로 표현된다.

1) **Я хочу пить.**

나는 음료를 마시고 싶다.

2) **Я могу летать.**

나는 날아 다닐 수 있다.

종합 명사 서술어는 체언(명사, 단어결합, 조격과 주격 형태로 된 형용사, 간단한 형태로 된 형용사, 대명사나 대명사 들어 있는 단어결합, 비교급 형용사, 최상급 형용사, 주격이나 조격 형태로 된 수사, 주격이나 조격 형태로 된 형동사, 부사)과 보조 용언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언은 의미를 나타내고 보조 용언은 서술어의 시제와 법(직설법, 가정법, 명령법)을 나타낸다.

3) **Она была певицей. Она стала певицей.**

그녀는 가수였다. 그녀는 가수가 되었다.

4) **Она без копейки.**

그녀는 돈이 한 푼도 없다.

5) **Она была маленького роста.**

그녀는 키가 작았다.

6) **Он болен.**

그는 아프다.

7) **Эта машина – Иванова.**

이 차는 이바노브의 차다.

8) **Ее сестра замужем за моим другом.**

그녀의 언니는 나의 친구에게 시집갔다.

위에 있는 예시를 보면 러시아어의 서술어는 문장에서 보통 바로 주어뒤에 온다고 파악할 수 있다.

### 2.2.1. 러시아어의 부속성분

러시아어의 부속성분중에 목적어 (*dopolnenie*, дополнение), 정어 (*opredelenie*, определение), 상황어 (*obstoyatelstvo*,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있다.

#### A. 적어

러시아어에 목적어는 주로 동작이 미치는 대상이나 특징이 나타나는 대상을 나타낸다 [이명자, 2007: 122]. 목적어는 대격 형태로 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미정형 동사, 단어 결합으로 표현된다.

목적어는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직접목적어란 타동사 또는 술어적 부사가 요구하는 대격형태의 보어인데, 부정의 경우에는 종종 생격 형태를 취한다. 간접목적어는 타동사 및 비타동사와 관계를 가지면서 대격 이외의 생격, 여격, 조격, 전치격 등의 사격 및 전치사를 수반하는 사격의 형태를 취한다.

직접목적어는 대격이 대부분의 타동사의 직접목적어를 표시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부정의 경우에는 때때로 생격이 사용된다’ [강, 2010: 9].

러시아어의 목적어는 보통 설명하는 말 뒤에 나온다.

- 1) **Я читаю книгу.**  
나는 책을 읽는다. (직접목적어).
- 2) **Я написал ручкой.**  
나는 볼펜으로 썼다. (간접목적어).
- 3) **Позвони мне.**  
나한테 연락해 줘. (간접목적어, 수여격).
- 4) **Я мечтаю о счастье.**  
나는 행복에 대해서 꿈을 꾸다. (간접목적어, 전치격)
- 5) **Я не ждал помощи.**  
나는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다 (직접목적어, 부부생격).

#### B. 정어

러시아어에 정어는 사물, 사람 등을 나타내는 말과 결합해서 그 성질, 특징 규정하는 것으로 ‘어떠한’, ‘누구의’, ‘어느 것의’ 등 물음에 답한다.

러시아어에서는 표현법에 따라 정어를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일치된 정어이며 다른 하나는 일치되어 있지 않은 정어이다.

#### 1) Умные студенты. С умными студентами. Для умных студентов.

똑똑한 학생들. 똑똑한 학생들과 함께. 똑똑한 학생들 위해.

#### 2) Его радость. Клумба у дома. Жажда увидеть.

그의 행복. 집 옆에 있는 꽃밭. 보기를 갈망하다.

(1) 에서와 같이 정어는 꾸미는 단어와 같은 형태, 격과 성을 취해서 이루어지면은 일치된 정어라고 한다. 일치된 정어는 형용사, 형동사, 대명사, 순서수사나 수사 ‘일,하나’로 표현될 수 있다.

(2) 와 같이 정어와 설명하는 단어상이에 지배관계 이루어지면 불일치된 정어라고 한다. 불일치된 정어는 항상 설명하는 단어 뒤에 나오고 명사, 명사의 역할을

하는 대격형으로 된 대명사+전치사 (아니면 전치사 없이), 부사, 미정형, 비교급 형용사와 소요대명사로 표현된다.

(3)

### С. 상황어

러시아어에 상황어는 장소, 이유, 시간, 동작이나 동작의 양태를 나타내며 ‘언제’, ‘어디에’, ‘어떻게’라는 물음에 답하는 부속 성분이다. 상황어는 부사, 사격 형태로 된 명사+전치사/전치사 없이, 부동사, 대명사, 미정형.

#### 1) (Где?) Снаружи было холодно.

밖은 더웠다 (어디, 부사).

#### 2) Он говорил (как?) очень тихо.

그는 너무 작을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어떻게, 부사).

#### 3) Домик находился (где?) в лесу.

집은 숲에 있었다 (어디, 전치격 형태로 된 명사).

#### 4) Он сидел (как?) ссутулившись.

그는 한쪽으로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어떤 식으로, 부동사).

### 2. 한국어와 러시아어 문장 성분 대조

앞서 1장과 2장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문장 성분 체계를 살펴 보았다. 제 3 장에서는 이 두 언어의 문장 성분 대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한편,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통사적으로 같은 Nominative type 언어에 해당되어 있다. 그 이유로 이 두 언어의 문장 성분 구분할 때 공통점이 생긴다.

그런 언어 타입의 특징중에는

- 격의 대조 (직격 (주격) vs 사격 (소격, 여격, 여격, 대격, 조격, 전치격));
- 타동사 vs 자동사 대조;
- 직접 대상 및 간접 대상 대조가 (가공식 주어-목적어 종립이 된다<sup>12</sup>)

있다.

또한,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어순이 자유로워서 문장 성분이 자기 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형태적으로 교착어와 고립어인 다른 속해 있어서 차이점도 많다.

우선적으로 언급해야 되는 것은 한국어는 주성분과 부속성분을 합쳐서 보면 6 개 있고 러시아어는 5개 있다. 러시아어는 주성분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있고 한국어는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로 나누어진다. 부속 성분의 경우에는 한국어에 관형어, 부사어가 있고 러시아어는 목적어, 정어, 상황어로 나뉜다. 러시아어에서는 보어가 없고 목적어의 경우 부속 성분에 속한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한국어에 1985년부터 널리 알려져 있는 보어 구분의 기준 하나는 동사 ‘되다’와 형용사 ‘아니다’ 앞에 오는 문장 성분은 보어라고 한다.

#### 1) 나는 학생이 되었다.

#### 2) Я-ø стал студентом.

나는 남성 – 되었다-과거 남성 – 학생이-전치격 표지.

1에서는 ‘학생’이라는 것은 보어이고 2에서는 종합 서술어의 부분으로 해석이 된다.

다음에 살펴봐야 할 문제는 러시아어에는 한국어와 달리 목적어는 부속성분에 속한다. 그 이유는 러시아어의 부속성분을 구분하는 기준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문장 성분 사이에서 이뤄지는 통사론적 관계, 문장 성분의 형태론적 특징, 부속성분과 부속성분이 설명하는 성분사이에서 이뤄지는 관계, 격의 다의성이다. 그리하여, 부속성분이 표현하는 의미와 일정한 문장에서의 성분의 사용법은 또 중요하게 생각되어

<sup>12</sup> 그런 경우에는 문장이 무인칭 구문이 된다.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어에서는 문장 성분들이 직감적으로 구분한 것이었다면 적절할 것이다 [Белошапкина, 1989: 616-617].

### 2.3.1. 주성분 대조

#### A. 주어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주성분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주어는 똑같이 ‘무엇이’, ‘누가’라는 물음에 답하고 문장의 시작에서 나오면 정상이고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에 여러가지 꾸밈말이 붙어서 쓰인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는 주어가 보통 주격 형태로 된 명사나 명사구로 표현된다.

1) 갈매기가 나를 따라온다.

**Чайк-а** летит [за мной].

갈매기-주격 따라오다-단수, 3인칭, 현재 나-대격

2) 바다는 잔잔하다.

**Мор-е** спокойное.

바다-주격 잔잔하다-중성, 단수, 주격

3) 친구 여러 명이 차를 마신다.

**Несколько-о друз-ей** пьют чай.

여러 친구-주격, 복수, 생격 마시다-3인칭, 복수, 현재 차-대격

러시아와 한국어는 높임말을 쓰는 언어이다. 높임법은 서술어까지 영향을 준다.

4)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신다.

**Вы не пришли** на лекцию.

당신-Ø 안 오다-높임법, 2인칭, 복수 전치사-에 강의-대격

당신은 강의를 안 오셨다.

4에서 서술어인 ‘계시다’는 주어인 ‘어머니’를 높인 것이다. 5에서 ‘Вы’ 2인칭, 단수 높임법 형태로 된 주어이어서 서술어는 다수의 어미인 ‘и’를 붙어서 쓰인다.

하지만 러시아어는 고립어이고 한국어는 교착어이기 때문에 한국어 주어는 ‘이’, ‘가’가 붙어서 쓰는 것이고 러시아어 주격인 주어는 보통 사전에 있는 원형 그대로 쓰인다<sup>13</sup>. 주어는 단어결합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명사는 소격 형태로 나온다.

또한, 한국어는 ‘만’, ‘까지’, ‘부터’와 같은 보조사가 같이 쓰일 수 있는 것과 달리 러시아어 문장에 이런 보조사가 나오면 문장 성분이 되지 않는다<sup>14</sup>.

5) 남동생만 안 왔다.

**Только младший брат не** пришел.

-만 남동생-Ø 안 오다-3인칭, 남성, 과거, 단수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명확하지 않아도 주어가 무엇인지 문맥을 보고 알 수 있으면 주어가 생략된다. 러시아어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한국어만큼 많지 않다. 러시아어에서 보통 인칭 대명사나 이미 쓴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쓰인다<sup>15</sup>.

6) **Иван отправится** в путешествие.

이반-Ø 떠나다-남성, 단수, 과거 여행에-중성, 단수, 대격.

이반은 여행을 떠났다.

**Он взял с собой** своего сына.

그-Ø 데리고 가다-남성, 3인칭, 과거 자기-남성, 생격, 단수 아들-남성, 대격,

단수

그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다.

<sup>13</sup> 러시아어에는 명사 3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다. 1,2,3 격변화가 있다. 격변화에 따라서 여성, 남성, 중성인 명사가 취하는 어미도 다르다.

<sup>14</sup> 러시아어에서 조사가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다.

<sup>15</sup> 러시아어는 앞에 오는 문장과 뒤에 오는 문장에서 같은 단어 나오면 문체론적 오류로 해석된다.

7) **Преподаватель** написал на доске иероглифы. Затем **он** попросил студентов написать их в тетрадах.

선생님 칠판에다 한자를 썼다. 다음에 그는 학생들에게 한자를 노트북에다 써 달라고 했다.

한국어는 주어가 명사절로 표현되어 있으면 체언 구실을 하는 말들이 주어로 쓰인다.

8)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나의 문제이다.

**Моя проблема** в том, что я не знаю, что мне теперь делать.

나-주격 문제-주격 그 것-접속사 나-Ø 모르다-1인칭, 현재 무엇-대격 나-수여격 이제 하다-미정형

한국어로 된 예시를 보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주어가 되는 것과 달리 러시아어로 된 문장에 명사절이 내포문이 되고 전체 문장이 복문으로 해석된다.

**В.** 서술어

한국어와 러시아어에서 서술어는 ‘어떠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라는 물음에 답하고 동사, 형용사, 체언, 체언의 구실하는 말로 표현된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문장에 들어가는 자동사와 타동사와 달리 각각 주어, 또는 주어와 목적어 외에 다른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 [남기심, 고영근, 2014: 255]. 이런 현상은 자릿수라고 한다.

1) 아이가 웃다.

**Ребенок улыбается.**

아이-Ø 웃다-3인칭, 현재

2) 사람들이 산책한다.

**Люди гуляют.**

사람들-주격 산책하다-3인칭, 복수, 현재

3) 학생이 문학을 배운다.

**Студент изучает литературу.**

학생-Ø 배우다-3인칭, 단수, 현재 문학-여성, 대격

4) 아들이 접시를 닦는다.

**Сын моет посуду.**

아들-Ø 닦다-3인칭, 현재 접시-대격

(1)과 (2)에서 서술어가 자동사로 표현되어 있어서 다른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과 달리 (3)과 (4)에서 타동사인 서술어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러시아어와 한국어에 서술어가 반복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5) 우리는 모스크바, 부모님들은 지방에 살았다.

**Мы жили в Москве, а родители – в провинции.**

우리-Ø 살다-3인칭, 복수, 과거 모스크-에, 그러나 부모-주격, 복수 지방-여성, 전치격, 단수

서술어는 처음에 나타날때도 생략이 가능하지만 시점이 불문명해진다.

6) 학생들은 – 미국.

**Студенты – в Америку.**

한국-주격 미국-대격

6에서 나타나는 문장을 보면은 학생들은 이미 미국으로 간 건지 아니면 갈 예정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가끔 보조용언의 도움을 받아서 서술어를 이룬다.

7) 철수가 돈을 다 써 버렸다.

**Чольсу потратил все деньги.**

철수-Ø 써 버리다-3인칭, 단수, 과거 다-복수, 대격 돈-대격, 복수

그렇지만, 러시아어에 서술어는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아서 종합 동사 서술어나 종합 명사 서술어를 이룬다 (본고, 2.2.1).

한국어는 자주 체언을 구실하는 말에 ‘이다’가 붙어서 쓰는데 러시아어는 ‘이다’ (есть) 항상 생략된다.

8) 그는 학생이다.

**Он (есть) студент.**

그-Ø 학생-Ø남성

또한, 한국어의 서술어는 선택제약이 있다.

선택 제약은 서술어의 어휘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 문장에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체언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는 것과 달리 [남기심, 고영근, 2014: 258] 러시아어는 그런 특징을 덜 들어낸다.

9) 머리를 감다 – 바닥을 닦다.

**Мыть голову, мыть пол.**

닦다-미정형 머리-대격, 닦다-미정형, 바닥-대격

4에서 한국어로 된 문장에 주어가 무조건 ‘감다’라는 용언을 요구하는 것이고 러시아어로 된 문장에 주어가 다른 것이지만 똑같은 용언을 붙어서 쓰인다.

한국어의 서술어는 러시아어의 서술어와 달리 문장 끝에서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어의 서술어는 보통 주어 뒤에 나온다.

### C. 목적어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목적어는 ‘무엇을’, ‘누구를’이라는 물음에 답하고 명사, 명사구로 표현되어 있을 수 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목적어는 서술어 앞에 나타나며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한 문장에 목적어 몇 개 나오면 겹쳐서 쓰인다.

10) **Я купил два яблока.**

나Ø 샀다 -‘л’ 과거 사과 두개-대격

나는 사과 두 개를 샀다.

하지만 한국어는 대격언어이고 한국어의 목적어는 러시아어와 달리 타동사 의해서만 표현되는 행위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다 [남기심, 고영근, 2014: 264]. 그래서 한국어에서 목적어는 조사 ‘을/를’이 붙어서 쓰인다.

러시아어는 대격과 능격언어의 특징이 같이 나타내기 때문에 타동사의 목적어의 격으로 대격 대신에 생격과 조격이 사용될 수도 있다 [강, 2010: 18].

11) 나는 어머니를 부르지 않았다.

12) **Я не ждал ответа.**

나-Ø 안-부정조사 기다리다-‘л’ 과거 대답-대격.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러시아어 목적어는 여격, 조격, 전치격 등의 사격 및 전치사를 수반하는 사격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한국어의 목적어는 러시아어와 달리 생략이 불가능한 문장 성분이다.

### 2.3.2. 부속성분 대조

#### A. 관형어 (정어)

한국어와 러시아어에서의 관형어(정어)<sup>16</sup>는 형용사,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용언이나 서술격조사의 관형어가 될 때 일정한 접어를 취해서 시간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1) 나는 벽에 끼어 있었던 나사를 뽑았다.

2) Я вытащил гвоздь, застрявший в стене.

나-Ø 뽑다-남성, 과거 나사-대격 끼어 있다-남성, 대격, 단수 벽에-여성, 전치격, 단수

(1)에서 ‘끼어 있었던’이라는 관형사는 시간 어미 ‘-었던’을 받아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2)에서 똑같이 원료상 행동사의 접미사 <вш>붙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한국어의 관형사는 러시아어의 정어와 같이 겹쳐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순서가 생긴다.

3) 저 세 건물

Эти три здания.

저 세 건물-주격,복수

러시아어는 한국어와 같이 지시관형어가 ‘저, эти’ 제일 먼저 나타난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관형사(정어)는 따로 쓰일 수 없고 항상 꾸며주는 단어와 같이 쓰인다. 한국어의 관형어는 꾸며 주는 용언 앞에서 나온다. 러시아어의 정어는 설명하는 말과 일치 관계 이루어져 있으면 앞에 나오고 지배 관계 이루어져 있으면 뒤에 나온다.

4) Юбка в клеточку.

치마 전치사 격자문의-대격

격자무늬 치마.

하지만 한국어의 관형어는 조사 ‘의’가 부터서 쓰인다. 러시아어 정어는 꾸미는 말과 일치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면 정어는 꾸며주는 말의 형태로 되고 지배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면 전치사를 붙어서 쓰인다.

5) Я носила мамину сумку.

저-Ø 매다-과거 어머니-생격 가방-생격

저는 어머니의 가방을 댄었다.

6) Ученица купила тетрадь в клетку.

여학생-주격 사다-여성, 3인칭, 과거, 단수 학습장-대격 전치사 네모칸-주격

여학생이 네모칸 학습장을 샀다.

в. 부사어 (상황어)<sup>17</sup>

한국어의 부사어와 러시아어의 상황어는 어루어지는 방식이 많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방식은 부사, 부사구나 부사절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1) Студент хорошо сдал экзамен.

학생-주격 잘 시험-대격 보다-‘л’단수, 과거 시험-대격.

학생이 시험을 잘 봤다.

2) Я не могу работать также хорошо, как ты.

나-Ø 못-부정조사 할 수 없다 – 1인칭, 단수, 현재 일하다 – 미정형 너 만큼

나는 너만큼 잘 일을 할 수 없다.

3) Я чувствую себя как рыба в море (수영을 너무 잘 해서).

나-Ø 느끼다-단수, 1인칭 나-대격 마치 물고기-주격 바다-전치격

나는 바닷속 물고기처럼 느껴진다.

<sup>16</sup> ‘정어’는 러시아어 ‘определение’의 번역된 말이다.

<sup>17</sup> 상황어라는 한국 말은 러시아어의 ‘обстоятельство’라는 뜻을 나타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한국어의 부사어와 러시아어의 상황어는 체언에 여러 가지 부사격조사가 붙어서 쓰일 수도 있다<sup>18</sup>.

- 4) Дети играют во дворе.  
 애들-주격 놀다-3인칭, 다수, 현재 전치사 마당에-전치격  
 애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다.

한국어의 부사어와 러시아어의 상황어는 다른 문장 성분의 뜻을 한정해서 꾸며줄 수 있고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다.

- 5)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ен тебе.  
 나-Ø 매우 고맙다-단순 형용사, 남성, 1인칭, 단수 너-수여격  
 내가 너에게 매우 고맙다.

- 6) Однажды я остановился и вдруг услышал,  
 что вокруг все гудит.

어느날 나-Ø 멈추다-3인칭, 남성, 단수, 과거 그리고 갑자기 들었다-3  
 인칭, 남성, 단수, 과거 주변이

- 다-중성, 주격, 단수 웅웅하다-3인칭, 단수, 현재  
 어느날 나는 멈춰서 갑자기 주변이 모두 웅웅하는 것을 들었다.

- 7) 유감스럽게 그는 이 일을 못 했다.

(5)에서 부사어는 서술어인 ‘고맙다, благодарен’ 한정하여 꾸며주는 것인데 (6)에서 ‘유감스럽게’, ‘однажды’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것이다.

한국어의 부사어와 러시아어의 부사어는 겹쳐서 쓰일 수 있다.

- 8) Мальчик очень быстро бежит.  
 남자아이-Ø 매우 빨리 뛰어다니다-3인칭, 단수, 현재  
 남자아이가 매우 빨리 뛰어다니다.

한국어의 부사어와 러시아어의 상황어는 한정하는 말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한국어의 부사어는 러시아어의 상황어와 달리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 한국어의 부사어는 체언에 ‘에’가 붙을 수 있고 ‘에게’ 붙을 수도 있다. 부사어인 무정명사에는 ‘에게’가 쓰고 무정명사에게 ‘에’가 쓴다.

- 9) 아버지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10) 여자아이가 바닥에 장난감을 떨어뜨렸다.

### 3.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문장 성분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교착어인 한국어와 고립어인 러시아어는 서로 다른 언어 유형에 속하고 있어서 통사론적 측면에서 보면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온다. 그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두 언어간의 차이를 비교가 아닌 대조라고 하였다.

본고에서 세워진 목적에 따라서 서술적 방법에 속하는 범주 분석, 대조하는 방법에 속하는 대조 해석으로 한국어의 문장 성분과 러시아어의 문장 성분을 하나 하나씩 살펴보고 그들의 특징을 구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어의 문장 성분이 5개인 것과는 달리 한국어는 6개의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진다. 러시아어는 목적어는 부속성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어는 목적어가 주성분이다. 그 이유는 러시아어에 타동성과 자동성은 같이 나타내는 동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동사를 유연한 동사 (*labile verb*) 라고 한다.

본고에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주성분들중에 제일 공통점이 많은 것은 주어와 서술어, 제일 차이점이 많은 것은 관형어인 것으로

<sup>18</sup> 그런 경우에는 러시아어의 상황어는 보통 전치사를 붙여서 쓰인다.

나타났다.

본 연구는 3, 4학년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문장 구성을 더 쉽게 이해하고 구문 분석할 때 남기심, 고영근이 표준어문법론을 쓰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홀로도비치의 분석 방법은 러시아의 한국 언어학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분석 방법이 러시아 내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 언어학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어 모국어 화자가 한국어 텍스트에 적용하고 분석하기에 매우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문장 성분 차이로 인하여 홀로도비치의 분석 방법은 한국어의 문장 성분에 맞지 않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에 한국어 텍스트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 언어학의 영향을 받은 한국어 텍스트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남기심, 고영근(2014)이 제시한 ‘표준 국어 문법’을 기준으로 한국어 텍스트 분석하는 방법은 한국어 텍스트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 텍스트를 보다 한국어의 문장 성분과 구조 속에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러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문장 성분 습득에서 나타나는 오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목표 언어에서 러시아어의 간섭으로 나타나는 오류는 문장성분에서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기로 한다.

###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 References

- Бабайцева В. В.** Система членов предложения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М.: Просвещение, 1988, 158 с.  
**Babaytseva V. V.** Sistema chlenov predlozheniya v sovremennom russkom yazyke [The system of the Parts of sentence in modern Russian language]. Moscow, Prosveshchenie, 1988, 158 p. (in Russ.)
- Белошапкина В. А.**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язык. М.: Высшая школа, 1989, 800 с.  
**Beloshapkova V. A.** Sovremennyy russkij yazyk [Modern Russian language]. Moscow, Higher School, 1989, 800 p. (in Russ.)
- Бречалова Е. В.** Корейско-русский перевод: неоднозначность морфологического и синтаксического типов при анализе текста и принципы ее устранения // Вестник МГУ. Москва, 2008. Серия 22: Теория перевода. № 3. С. 28–44.  
**Brechalova Ye. V.** Korejsko-russkij perevod: neodnoznachnost' morfologicheskogo i sintaksicheskogo tipov pri analize teksta i principy ee ustraneniya [Korean-to-Russian translation: morphological and syntactical ambiguity of Korean phrases and principles of its elimination] // Bulletin of Moscow State University, Series 22, No. 3 (july-september), Moscow, 2008. PP. 28–44. (in Russ.)
- Бречалова Е. В.** Об одном подходе к семантико-синтаксическому анализу корейск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 Вестник РГГУ. Москва, 2009. Серия: История. Филология. Культурология.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 6. С. 177–199.  
**Brechalova Ye. V.** Ob odnom podhode k semantiko-sintaksicheskomu analizu korejskogo predlozheniya [An Approach to the Formal Semantic and Syntactic Analysis of Korean Sentences] // Bulletin of Russian State University for the Humanities, No. 6, Moscow, 2009. PP. 177–199. (in Russ.)
- Виноградов В. В.**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русской грамматике. М.: Наука, 1975. С. 254–294.  
**Vinogradov V. V.** Izbrannyye trudy. Issledovaniya po russkoj grammatike [Selected Works. Studies on Russian grammar]. Moscow, Nauka, 1975. PP. 254–294. (in Russ.)
- Виноградов В. В.** Русский язык.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учение о слове. М.: Наука, 2001, 710 с.  
**Vinogradov V. V.** Russkij yazyk. Grammaticheskoe uchenie o slove [Russian language. Grammatical doctrine of a word]. Moscow, 2001, 720 p. (in Russ.)

- Золотова Г. А.** Синтакс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Репертуар элементарных единиц русского синтаксиса. М.: Наука, 1988. 439 с.  
**Zolotova G. A.** Sintaksicheskij slovar'. Repertuar ehlementarnyh edinic russkogo sintaksisa [Dictionary of Syntax. Elementary repertoire of units of Russian syntax]. Moscow, Nauka, 1988. 439 p. (in Russ.)
- Каплан Т. Ю., Беляков И. М.** Обзор теории членов предложения в трудах отечествен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лингвистов //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ладивосток, 2005. № 9. С. 147–159.  
**Kaplan T. Yu., Belyakov I. M.** Obzor teorii chlenov predlozheniya v trudah otechestvennyh, yuzhnokorejskih i severokorejskih lingvistov [A Review of the basic theories of Sentence parts in the writings of domestic,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linguists] // Bulletin of Oriental Institute No. 9, Vladivostok, 2005. PP. 147–159. (in Russ.)
- Холодович А. А.**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 Ленанд. 2014. 328 с.  
**Kholodovich A. A.** Ocherk grammatiki korejskogo yazyka [Introduction of Grammar of Korean language]. Moscow, Lenand, 2014, 328 p. (in Russ.)
- Шведова Н. Ю.**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Т. 2. М.: Наука, 1980, 710 с.  
**Shvedova N. Yu.** Russkaya grammatika [Russian Grammar]. Vol. 2. Moscow, Nauka, 1980, 710 p. (in Russ.)
- Ко Ёнгын, Ку Бонгван.** Урималь мунбопрон. [고영근, 구분관. 우리말 문법론. 파주, 집문당].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хаджу: Чипмундан, 2009, 594 с. (на кор. яз.)  
**Ko Yong-Kun, Gu Bon-Gwan.** Ulimal munbeoblon [고영근, 구분관. 우리말 문법론. 파주, 집문당]. Grammar of our language. Paju, Jibmundang, 2009, 594 p. (In Kor.)
- Ко Ёнгын, Нам Гисим.** Пхёджун гуго мунбопрон [고영근, 남기심.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박이정]. Академ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еул: Пагиджон, 2014, 504 с. (на кор. яз.)  
**Ko Yong-Kun, Nam Gi-Sim.** Pyojun gugeo munbeoblon [고영근, 남기심.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박이정]. Standard Korean grammar. Seoul, Bagijeong, 2014, 504 p. (In Kor.)
- Ли Мёнджа.** Росияо-ый куджо. [이명자. 러시아어의 구조. 파주, 보고사]. Структур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хаджу: Погоса, 2007. 200 с. (на кор. яз.)  
**Lee Myeong-Ja.** Leosiaeoui gujo [이명자. 러시아어의 구조. 파주, 보고사]. Russian structure. Paju, Bogosa, 2007, 200 p. (in Kor.)
- Ли Хёнён, Ли Ёнсок.** Нэпхонун-ый танмун пунхар-ыль иёнхан хангуго кумун пунсок [이현영, 이용석. 내포문의 단문 분할을 이용한 한국어 구문 분석]. Синтаксический анализ корейск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егментирования придаточ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 Вестник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инженеров. Сеул, 2008. Т. 35, № 1. С. 55–58. (на кор. яз.)  
**Lee Hyeon-Yeong, Lee Yong-Seok.** Naepomunui danmun bunhaleul iyonghan hangugeo gumun bunseog [이현영, 이용석. 내포문의 단문 분할을 이용한 한국어 구문 분석]. Korean Syntactic Analysis by Using Clausal Segmentation of Embedded Clause, Bulletin of KIISE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Vol. 35, No. 1, Seoul, 2008. PP. 55–58. (In Kor.)
- Ли Хонсик.** Гуго мунджан-ый чусонбун ёнгу [이홍식.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Главные члены предложени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еул: Волин, 2000, 308 с. (на кор. яз.)  
**Lee Hong-Sig.** Gugeo munjangui juseongbun yeongu [이홍식.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서울, 월인]. A Study on major sentence constituents in Korean. Seoul, Wolin, 2000, 308 p. (In Kor.)
- Ли Чжонгхэк.** Мунджан сонбун пунню [이정택. 문장 성분 분류 試論]. Классификация членов предложения // Вестник Ассоциации лингвистов Южной Кореи, Сеул, 2002. Т. 16. С. 375–389. (на кор. яз.)  
**Lee Jung-Tag.** Munjang seongbun bunlyu silon [이정택. 문장 성분 분류 試論]. A Classification of Sentence Elements // Bulletin of The Association for Korean Linguistics Vol.16, Seoul, 2002. PP. 375–389. (In Kor.)
- Пак Чханён.** Хангуго-ый чуо ёнгу. [박창영. 한국어 주어 연구] Подлежащее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еул: Университет Дангук, 2014, 104 с. (на кор. яз.)  
**Park Chang-Young.** Hangugeo jueo yeongu [박창영. 한국어 주어 연구]. A Study on Subject in Korean. Seoul, Dongguk University, 2014, 104 p. (In Kor.)
- Ча Мёнхи.** Тхатонса-ва хангуго-ый мокчок [차명희. 타동성과 한국어의 목적어]. Транзитивность и дополнение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еул: Университет Дангук, 2015, 128 с. (на кор. яз.)

**Cha Myung-Hee.** Tadongseonggwa hangugeoui mogjeogeo [차명희. 타동성과 한국어의 목적어]. A Study on Transitivity and Korean Object]. Seoul, Dankook University, 2015, 128 p. (In Kor.)

**Чхве Джиён.** Хангуго-ва росияо-ый сан мунбоб пхёджи пигё ёнгу [최지영.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상(相) 문법 표시 비교 연구]. Сопоставитель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маркеров категории вида в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 Вестник Академии 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Азии. Кванджу, 2017. Т. 8, № 5. С. 1289–1304. (на кор. яз.)

**Choi Ji-Young.** Hangugeowa leosiaeooui sang munbeob pyoji bigyo yeongu [최지영.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상(相) 문법 표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Grammatical Marker of Aspect of Korean and Russian. // Bulletin of The academy of Asia Cultural Studies, Vol. 8, No. 5, Gwangju, 2017. PP. 1289–1304. (In Kor.)

*Материал поступил в редколлегию*

*Received*

*27.08.2018*

### Сведения об авторах / Information about the Authors

**Шмакова Анна Сергеевна**,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доцент кафедры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Новосибир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ул. Пирогова, 1, Новосибирск, 630090, Россия, shmakovaa@yahoo.com)

**Anna S. Shmakova**, Candidate of Science (History), Assistant Professor of the Chair of Oriental Studies, Novosibirsk State University (1 Pirogov Str., Novosibirsk, 630090, Russian Federation, shmakovaa@yahoo.com)

**Ли Джонсик**, Корейский Фонд, лектор-интерн (Синчжун-но 55, Согвипхо-си, Чеджудо, 63565,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ljs@ajou.ac.kr)

**Lee Jeongsik**, Korea Foundation, intern, lecturer (Sinjung-ro, 63565, Republic of Korea, ljs@ajou.ac.kr)